

우수교육 프로그램

역량 중심 사회를 대비하는 동국대학교의 학생역량 제고 및 취업지원 시스템

박서진 | 동국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취업지원센터장



1. 스펙 중심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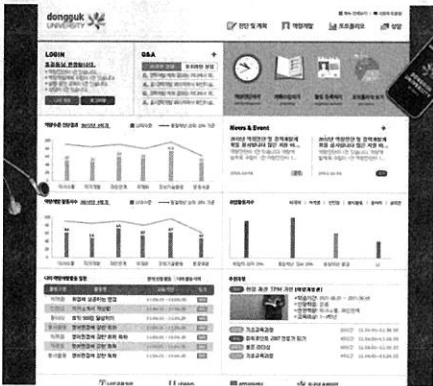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과제들이 대거 수록되었는데, 그 중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대선 공약부터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과제이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란 기존의 어학 성적, 출신 학교 등 양적 스펙이 아니라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2012년 시범 운영하던 ‘역량기반 지원서’를 2013년부터 전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벌(또는 스펙) 중심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앞서 동국대학교는 스펙보다 역량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2011년부터 구축하여 올해 신입생 전원에게 시행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II. 동국대 학생역량제고시스템 '드림패스(Dream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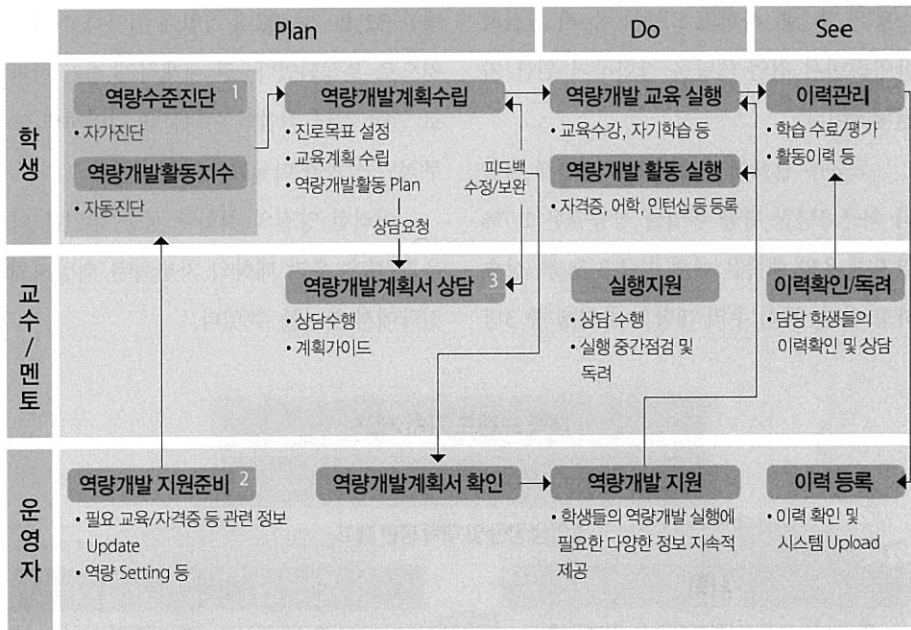
【그림 1 / 동국대 드림패스 시스템 초기 화면】

동국대학교 신입생은 올해부터 두 가지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기존의 성적표와 더불어 '역량진단 및 활동 결과서(Dream PATH Report)'가 새롭게 첨부되는 것이다. 이는 핵심역량을 자가 진단하고 활동계획을 입력 후 그 결과에 따른 역량 향상도를 관리받는 '드림패스(Dream PATH)'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

재 동국대학교의 2013학년도 신입생의 88%가 진단을 완료했다.

국내 대학 최초로 개발한 '드림패스 시스템'은 학생들의 희망진로와 역량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핵심 역량을 재학기간 동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전공교육이 학과단위 교수들에 의해 집중 관리된다면 비교과영역의 취업, 외국어, 봉사 등 실무역량은 동국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진단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드림패스는 크게 역량진단과 역량개발 계획, 역량개발활동, 역량평가분석의 영역으로 나뉜다. 역량개발활동 프로그램은 교과와 비교과, 외부교육 과정으로 나뉘는데, 교과 과목은 1단계 자기탐색부터 2단계 핵심역량 개발, 3단계 사회진출 준비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드림패스 1단계에 해당하는 저학년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비전 설정과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설계 등 직업 선택을 위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2단계의 학생들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 스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업의 체계와 경영에 대한 이해 등의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취업을 목전에 둔 학생들은 3단계, 채용 정보 및 취업전략 수립, 직무의 이해 등 취업실전전략에 관한 현실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 그림 2 / 드림패스 시스템 FLOW 】

한편 비교과 과목은 기존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실용적인 과목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이수 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자격증, 공모전 등 본인이 시행한 외부 활동 내역들을 사이트에 입력하면 본인 점수와 동일학년, 동일학년 상위 20%, 전체학년 평균, 전체학년 상위 20% 점수 등 다른 학생들과의 역량 수준을 스스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드림패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국대학교는 2012년 기존 학생경력개발원을 '미래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고 드림패스 운영 전담부서인 '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는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이 단

순한 취업 스킬에 머물지 않고, 취업 그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관점을 달리한 김희옥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희옥 총장은 그동안 기초교양교육 강화와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재동국 프로젝트>를 기획해 3년째 실행하고 있다. 드림패스, 역량개발센터 신설 등이 <인재동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III. 동국대학교 취업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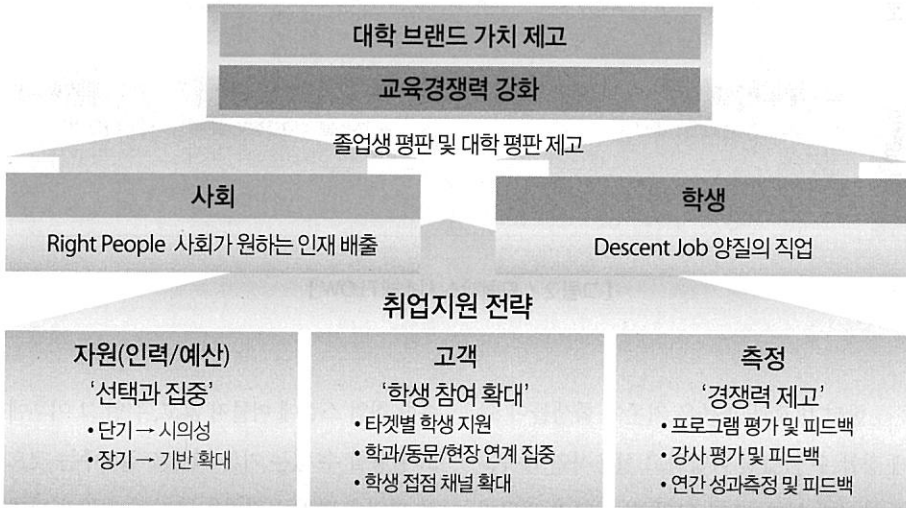
드림패스가 전교생 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라면 동국대학교 취업지원 시

시스템은 학생과 사회의 요구를 좀 더 긴밀히 반영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상승률은 1.7%였지만 우리 대학은 매해 평균 3.5%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졸업생 중 3년

평균 32.1%가 300대 기업에 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한파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양질의 취업률 상승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우리 대학의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 동국대 취업지원 전략】

첫째,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원칙이다.

상·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이 되면 취업지원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직무적성검사, 인성면접, PT면접, 심층상담까지 매우 다양하고 비정기적이다. 이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단기 프로그램은 기업 공채 프로세스에 맞춰 '적시'에 개설하고, 장기 프

로그램은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취업을 둘러싼 다양한 고객군의 '참여 확대' 원칙이다.

취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니즈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남학생인가, 여학생인가', '인문계열인가, 이공계열인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니즈를 모두 반영하려면 취업지원센터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고객 니즈에 가장 적합한 취업 선배(학과선배, 희망입사 기업 선배 등) 또는 교수, 현장 전문가 등과 멘토링 연결로 학생들의 니즈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은 이론에만 갇히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원칙이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강사의 전달 능력, 강의장 환경, 강의 콘텐츠 등에 의해 천

차만별이다. 이를 측정·피드백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모든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결과 및 강사 평가 DB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IV. 관점의 차이가 대학 경쟁력 제고 이끌어

우리 대학에서는 [그림4]와 같이 학생 취업을 위해 조직, 인적자원, 채용지원 서비스, 시설 및 홍보 시스템,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4 / 동국대 취업지원 시스템】

비단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최근 각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하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와 취업지원센터의 마인드에 따라 그 성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 취업 지원은 대학생 스펙 쌓기 차원이 아닌 미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개발 제고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드림패스'이다.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대학 교육의 출구에서 사회 및 기업 현장의 니즈를 학교로 피드백하고 동시에 동국대학교 인재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

리는 가교 역할자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동국대 졸업생 개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인재 양성 체계, 즉 '입학 → 교육 →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 졸업생이 역량 중심 사회에서 더욱 환영 받는 인재로 자리 잡고, 나아가 동국대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우리 대학의 드림패스 시스템이 완성되는 4년 후가 기대되는 이유이다.